

새싹포커지 11월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포커지 2013년 11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의 소리 듣기



11월 2일 우송관 4층 교수회의실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 박은혜 교수님께서 유아의 소리 듣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다. 재학생뿐 아니라 현직 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과 원장님,

수시 1차 합격생 OT



2013년 11월 5일 우송대학교 서 캠퍼스에서 수시 1차 합격생 OT가 진행되었다.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

2학년 원예특강

지난 11월 8일 우송대학교 동 캠퍼스 원예실에서 2학년 학생들의 원예특강 첫 시간을 가졌다. 최근에 높아진 생태계교육의 관심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이 특강은 12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하던 수업과는 달리 여러 가지 식물을 직접 만

선생님들까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다.

박은혜 교수님의 강의는 교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교수 원리를 바탕으로 시작하여 유아들의 소리를 듣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다.

박은혜 교수님의 비유에 따른 생존기 교사인 선배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예비 생존기 교사로 돌입하는 재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좋은 강의였기에 많은 재학생이 듣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특강을 들은 연술이 학생은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교육 과정이 뭔지, 교사가 교육과정을 유아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활동을 계획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생활주제를 유아들에게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지 않고 발달을 돕는 활동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유익한 특강이었다고 전했다.

까지 접수를 하고, 10시에 우수대학 선정, 장학금 제도 및 교육 프로그램 안내, 재학생들의 축하공연으로 이루어진 학교 특강을 들었다. 12시에 학생식당에서 식사 후 1시부터 각 과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성희 교수님의 학과 및 유아교육과 소개를 시작으로 3학년 한수진 학생 자신의 목표와 노력으로 인한 성과, 박상희 학생의 공모전 소감, 강세나 학생의 PBL 과정에 관한 발표를 듣고 교수님 및 선배들과 다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퀴즈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3시에 유치원과 각국의 유치원에 관한 성원경 교수님과 캐롤린 교수님의 특강이 있었다.

지고 관찰하니 수업에 흥미를 느낀 친구들이 많았다. 첫 시간에는 상추 3개와 팬지 꽃 20개를 심었다. 그중 상추 화분 하나는 각자 집으로 가져가 관찰하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이 강의를 통해 평소에 배우던 과목들과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우리들의 이야기

영어 스피치 대회



2학년 정민재 학생

2학년 A반의 김지선, 제임스 교수님과 함께 3주가량 준비를 한 뒤 11월 1일, 가정관 시청각실에서 열린 영어 스피치대회에 캄보디아의 유아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영어로 발표한다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다. 그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 지선이와 서로 격려해주고 조언해주었다. 원어민 교수님과 저녁이나 금요일 오후에 만나 발표 연습과 피드백을 받고 난 후, 제스처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자신감도 생겨 발표를 잘 마칠 수 있었다. 많은 조언을 주었던 친구들과 열심히 잘해준 지선이와 지도교수 제임스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10월 31일 4시부터 6시까지 우송타워에서 스피치 대회에 참여했다. 장혜림, 조인선과 같이 준비하면서 어려움도 많았고 생각보다 암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래도 일본 유치원의 역사, 교육, 독특한 교육, 소개 등에 대하여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유치원 과정 말고도 일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평소에 발표할 때 많이 떠는 편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발표 실력이 조금 향상된 것 같아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2학년 탁소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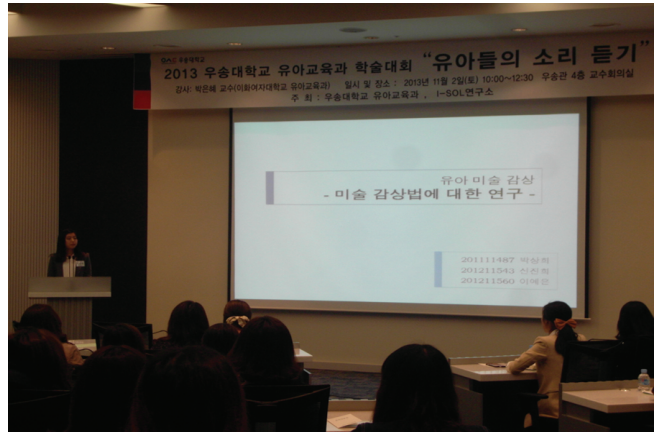
공모전 후기



2학년 신진희, 이에은 학생과 함께 준비하고 발표한 공모전 연구 주제는 ‘유아 미술 감상’입니다.

공모전 참가를 위해 참신한 미술 활동 계획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던 중 표현활동 부분은 많은 정보가 있었지만 유독 미술 감상 활동 부분은 어떠한 자료들을 찾아 보아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술 감상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며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성인 미술 감상에 대한 정보들은 많이 보였지만 역시나 유아 수준에 맞는 미술 감상은 한정된 활동 이외에 찾기 힘들었습니다. 정보를 찾으며 유아 교사들도 감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감상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사들도 유아 미술 감상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미술 감상 책’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본격적



3학년 박상희 학생이 공모전 주제인 미술 감상법에 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으로 미술 감상 책의 제작에 나섰습니다.

미술 감상 책은 도서관 책, 인터넷검색, 논문자료, 교과서 등의 많은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외에도 전시회에 다녀온 경험을 상기하며 성인 미술 감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뒤, 이것을 유아수준으로 적용하여 유아 미술 감상법을 만들고 활동의 예시도 직접 생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책을 만들 때와 공모전의 목적이 달라 많이 생각하고 연구하며 내용을 다듬은 끝에 저희 팀의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송유치원 소식

감 따기



선생님께서 감 따는 방법을 설명해주시는 모습이다.

11월 13일에는 우송유치원의 만 3, 4, 5세 모두가 참여하여 감 따기 활동을 하였다. 우송유치원 앞 감나무에서 감을 따와 유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감을 줄



수확한 감과 만든 감 모형을 달아 둔 모습이다.

에 직접 매달아 보았고, 홍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유아들과 약속을 하였다.

모과 따기

11월 20일에는 우송유치원 만 3, 4, 5세 모든 유아가 유치원에서 모과 따기 활동을 하였다. 만 3, 4세는 모과를 맛보고 나중에 모과차를 끓여 먹기로 하였으며 만

5세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모과차를 만들어 포장부터 가격표까지 직접 만들어 팔며 기부행사 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는 12월에 연계되어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부모 참여수업



부모님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1월 23일에는 엄마와 함께하는 참여수업이 진행되었다. 각 영역에 준비된 활동을 엄마와 함께 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만 3세 반에서는 울동, 동화, 동시 활동을 하였고, 만 4세 반에서는 대집단 게임, 만 5세 반은 이야기 나누기, 누리 반은 노래와 울동으로 참여수업을 진행하였다.

만 3세 반은 가을을 맞이하여 유아들이 직접 감 모형



부모님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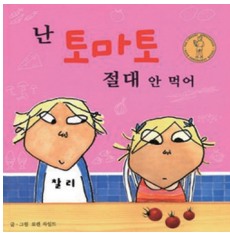
을 만들어보았고, 물 뿌려서 낙엽 나타내기 활동도 진행하였으며 만 5세 반에는 초등연계 활동으로 수수깡으로 나뭇잎 길이 재기 활동을 하였다. 이전에 이응노 미술관에 다녀온 사후활동으로 그곳에서 보았던 신문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을 토대로 맛있는 방의 벽에 나무 꾸미기 활동을 하였고, 이외에도 만 4, 5세가 색 솜을 이용하여 만든 합동작품도 볼 수 있었다.

지혜나눔 프로젝트

동화를 통한 유아 생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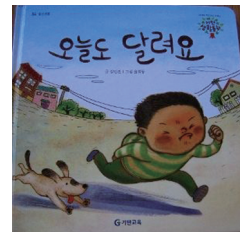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지도할 수 있을까? 유아들의 생활지도를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 중 동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시중 서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생활지도 동화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생활지도는 식사습관, 배변훈련, 수면습관 등이 속하는 기본생활습관 지도, 집단규칙, 갈등 등이 해당하는 집단 생활지도, 사회성문제지도, 정서 문제지도, 발달지체 및 행동장애 지도 등이 있다.



찰리는 여동생 룰라에게 밥을 차려주는데 동생이 편식한다. 동생이 스스로 콩, 당근, 토마토 등을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찰리는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해낸다. 편식하는 유아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사습관 관련 생활지도 동화이다.

주인공 아이가 변이 마려운데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서 참다가 결국 바지에 실수한다. 엄마가 와서 다음에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주며 닦아준다.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배변습관 관련 생활지도동화이다.



아기 꿈은 장난감이 망가져도, 그네를 타고 싶어도 울기부터 한다. 하지만 친구는 울지 않고 “아빠, 이거 고쳐 주세요.” 한다. 아기 꿈은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울지 말고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말로 할 수 있는데 울기부터 하는 유아들에게 울지 않고 또박또박 원하는 것을 말하는 법을 알려주는 생활지도 동화이다.

노마는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여 채소를 먹을 기회가 별로 없다. 방학이 되고 할머니 댁에서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기르고 수확하여 먹는 노마는 점점 튼튼해지고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게 되는 식사습관과 관련 생활지도 동화이다.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 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유리 김예솔 김지윤

박지원 박명옥 손혜원

